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들의 화주 시주 꼭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 현대불교

대림산성이 있고 합천 해인사가 운영하는 고풍적 추모관  
 영가전도·재전문사상  
**海印寺 미타원**  
 02)737-7159

## ‘법문서비스’ 때·장소 안가려요

스님·재가법사 부루나 전법봉사단 구성 11월부터 활동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죽음을 무릅쓰고 10만 명을 포교한 부루나(Purna)존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전법봉사단이 결성된다.  
 원력과 자질을 갖춘 스님 18명과 재가법사 17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부루나전법봉사단(단장 계성, 전등사 주지)이 11월 1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부루나 전법봉사단은 법사를 모실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직장 직능단체와 군 병당 등을 찾아가 법보시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역

직장직능단체·군법당 찾아 법회지원  
 지역별 법사지원망·후원회 등 조직

별 법사지원 네트워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후원회도 조직할 예정이다.  
 또 법회지원 활동비용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회비로 전액 충당하고, 법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축적 및 설법교안 연구에도 전념할 방침이다. 이학송(광동여교 교관) 사무총장

밝힌 발기인은 계성, 퇴휴, 법인, 지관, 심산, 도찬, 남전, 선웅, 정범, 성광, 진오, 영일, 선재, 만성, 월공, 광태, 선해, 성광 스님과 김범준, 김형중, 김종섭, 민관식, 박경준, 박영동, 손양호, 신진욱, 성재현, 양재형, 우인보, 이동배, 이육태, 이학송, 이학주, 전창용, 최현식 법사이다.  
 부루나 전법봉사단은 100여 명의 법사지원망을 확보키로 하고, 교계의 명망 있는 스님과 인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법사 지원문의 (02) 725-5233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조계종-태고종 분규 사찰 전통사찰 지정안돼 망실가능성

봉원사·백련사·청련사 명단에 빠져

조계종과 태고종 간에 분쟁중인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시급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통사찰 목록에 순천 선암사는 포함돼 있지만, 서울 봉원사, 백련사, 청련사(안정사) 등은 빠져 있다. 전통사찰로서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당 사찰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 전통사찰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

통사찰 지정이 시급하지만, 양 종단과 해당 사찰 스님들은 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도심에 위치한 분경사찰 청련사가 현재 조계종측 주지 스님과 태고종 주지 스님

의 합의에 의해 매각 위기에 놓여 있다. '명분 없는 재산 처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양측이 합의만 하면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봉원사와 백련사 같은 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없이 임의적인 처분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전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회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과 불교 재산의 보호, 망실 방지 등을 위해 분경사찰의 전통사찰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비구니 정체성 확립에 힘쓸 것”

명성 스님, 7대 전국비구니회장 취임

전국비구니회 제7대 회장 명성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의 취임법회가 10월 22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관원기사 3명 명성 스님은 취임사에서 “비구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행풍토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여성불교대회에 시작으로 한국비구니 승단이 세계여성불교의 국제교류 증진과 발전에 공헌토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평생을 교육불사에 정진해온 명성 스님의 회장 취임은 스님의 정진과 보

살행을 불교계에서 본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치사했다. 한성희 기자

**조계종 내달 중앙총회**  
 조계종 제161회 정기중앙총회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회기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4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법어사·선암사 및 사찰사안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한명우 기자



◇주지 철안 스님(오른쪽 두번째)이 진산식 직후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민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봉선사는 주지 진산식에서 축하회한대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받고성금을낸 사람들의 이름을리본(사진 위)에 적어 행사장을 꾸몄다. 사진=박재완기자

## 화환없는 주지 진산식

지난 6월 25교구본사 선운사 주지로 취임한 법어 스님은 지역노인 5천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로 진산식을 대신했고, 2001년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로 취임했던 평상 스님은 지역민들을 초청해 일요법회에서 법문을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또 같은 해 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로 취임한 원정 스님도 진산식을 갖지 않고 그 비용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아직 화환을 주고받는 진산식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종래와는 달리 지역민과 함께 하는 진산식이 점차 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찰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산사음악화해 개산대제에서도 느낄 수 있다. 최근 '봄'이 일고 있는 산사음악화해는 사

찰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스님은 마이크를 잡고 직접 노래를 부르며 지역민들과 어울리기도 한다.  
 산문이 열린 날을 기념하는 개산대제 역시 법회만으로 진행되던 과거와는 달리 문화행사로 바뀌고 있다.  
 권위를 벗고 대중과 함께 하는 스님과 사찰들, 산문을 열고 못 중생들을 품안에 안는 것이야말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불법의 실천'임이 분명하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53-1196 제주: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10월 24일 열린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진산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산식과 비교해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그 흔한 축하 화환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사 람들 이름이 적힌 리본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주지로 취임한 철안 스님이 화환을 받는 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더 크다고 제언해, 성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리본에 적어 행사장을 꾸민 것이다.

## 감동의 신행체험수기 공모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9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속에만 폭포 담아두었던 깊은 감동, 신행체험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주가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회장님이 신선패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살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isubhy@buddhapia.com
- 접수 마감: 12월 13일

200자 원고지 30매... 12월 13일 마감

-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 종단협의회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 대안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 신수회회장상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도롱뇽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www.cheonsung.com

도롱뇽과 인간이 함께 꿈꾸는 세상  
 우리 도롱뇽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하고 사라져 가는 많은 생명들의 손을 잡아 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과의 공생 속에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대의 물질문명은 환경파괴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연에 대한 미덕마저 함께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제 자연의 방문자로 이 땅에 온 우리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고 인간이 아닌 모든 생명들의 눈으로 개발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도롱뇽 소송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와의 아름다운 연대 관계를 유지하며 조화로운 지구 가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담은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 도롱뇽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 후원계좌번호 : 부산은행 140-12-013476-7 (예금주 : 손정현)
- 문의전화 : 051)623-9220 051)628-0902
- 가입방법 : www.cheonsung.com에서 도롱뇽의 친구들 가입

